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m...순례단 가는 곳마다 '들썩'

△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 ○ 승인 2021.10.12 13:35 | ☎ 호수 3687 | 💬 댓글 0



이들째 비가 이어지면서 순례단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저는 살다살다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스님하고 신도들이 100명도 넘게 걷는다던데, 하필이면 비가 이렇게 오는 날씨에 우산도 안 쓰고... 너무 고생들하시네. 원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하나 봐요.”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인 10월12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 들어서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보고 김선진 이방면사무소 주무관이 노태우 동산마을이장에게 질문을 건넸다. 면사무소로부터 순례단이 동산마을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른 새벽부터 순례단이 지나가는 휴식처로 한걸음에 달려 온 길. 노태우 이장은 “원래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걸어서 수행하는 걸 많이들 한다는데 국내에서 이런 광경은 나도 처음 본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18일 간 한반도 남쪽을 횡단하는 중이라 설명하자 김선진 주무관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불교계가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다.

순례단이 이방면에 입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하루, 이방면 전체가 들썩었다. 순례단이 지나가는 길을 하루 전 미리 전해 듣고 비를 피할 곳과 화장실을 물색해 휴식처를 제공한 성익경 이방면장은 이날 새벽5시부터 시내로 나와 순례단을 기다렸다. 비를 맞아 추위에 떨고 있는 순례단을 위해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련하고 싶었지만 길어야 10분 정도의 휴식이 주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운 마음만 가득했다.

성익경 이방면장은 “실내 체육관을 섭외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외부 협소한 공간만 제공해드릴 수밖에 없어 너무 죄송스럽다”며 “비가와도 개의치 않고 순례를 계속하는 극복의 힘으로 불교가 국민에게 코로나는 물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직접 전해주는 것 같아 참 기쁘다”고 말했다.



불교신문TV

더보기 >

행복을 여는 화암스...



행복을 여는 화암스님 염불 7. 아미타...

포토뉴스



섹션별 최신기사

종단 “막말 정정래 사퇴하라”...1인 차량...
전국 심곡암,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 ...
사회&국제 세상을향키롭게, 굿월드자...
인물 [동정] 정도스님, 가사불사 회향 점...
대중공사 [여시아문] 아이들에게 배운다

"SNS에서
뉴스를

불교신문TV

행복을

행복을 여는 화암

많이 본 기사

- 1 [원파스님의 해
- 2 前 경주 기림사
- 3 불조 혜명 계승
- 4 대중사명사 스
- 5 총무원장 원행
- 6 “아들 출가시킨
- 7 423km 대장정 호
- 8 [불교신문이 만
- 9 “수륙재로 모든
- 10 BBS불교방송 스



최신뉴스

- “막말 정정래 사퇴하
- [동정] 정도스님, 가사
- 심곡암, 코로나19로
- 강릉사회복지관 소
- 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청주불교방송 11월6
- [25교구 뉴스] 봉선사
- 역사적 상처 치유...1
- 정해림 승무 2021 정
- 일진베어링, 경주장



출발 전 발원문을 함께 읽는 순례단.



길가에서 아침 공양을 하고 있다.



비가 고인 웅덩이 옆을 지나는 천리순례단.

수행&신행 '맘마미아' 뮤지컬 가수 등...
문화 정해림 승무 '2021 정해림 찰나의 ...
기획&연재 [주제가 있는 사찰 기행] 화...
출판&문학 부처님의 원음으로 다시 읽...
학술&문화재 동국대 동서사상연구 제16...
복지&상담 강릉사회복지관 소외계층 ...



법공양 (기획PR)





가을 비를 맞으며 걷는 고통은 순례를 더욱 익게 한다.



창녕을 지나는 순례단을 마을 주민들이 환호로 맞이하고 있다.



성익경 면장(사진 왼쪽)과 자승스님이 서로 합장 인사를 하고 있다.



이방면에서 마련한 공터에서 잠시 쉬어가는 순례단.



트랙터를 의자 삼아 쉬어가는 스님들.



자승스님이 동산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믹스 커피를 받으며 반색을 했다.

하루 전 폭우 속 23km를 걸은데 이어 이를 꽤 우중 행선에 나선 순례단은 체력 저하와 추위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순례단을 응원하는 탄성이 이어지면서 지친 걸음에도 힘이 실렸다. 순례단이 이날 마지막 구간을 앞두고 표정이 심각하게 어두워지던 때, 동산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일찍부터 나와 따뜻한 커피와 녹차 등을 준비하며 가뭄 속 단비가 돼 줬다.

빗방울이 비옷을 뚫고 스미며 한기까지 살갓을 파고든 쌀쌀한 날씨, 따뜻한 차로 환대해준 주민들에게 순례단은 “감사하다” 재차 인사를 건넸다. 손사래를 치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 마을 주민들 격려엔 스님과 신도들을 향한 걱정과 응원이 담겼다. “우리도 다 절에 다녀요” “아니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스님들 옷이 다 젖었네” “비라도 그치면 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다시 내일을 살게 하는 건 사람의 온기 때문이다. 순례 12일차, 새벽 이슬과 빗방울을 맞으며 제 때 씻지도 못하고 길 한 바닥에서 먹고 자야하는 순탄치 않은 길, 피로는 쌓여 가고 당장이라도 걸음을 멈추고 싶지만 내일 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이날 회향 축원 때 정혜스님이 말한 “이 108천리순례단의 발걸음이 이어져 1080명이 되고 억만명이 될 때까지 화엄세계 우담바라꽃이 억만송이 펼쳐지길 때”까지.

천리순례단은 이날 경북에서 불보종찰 통도사가 있는 경남으로 들어섰다. 순례단 발길은 이제 부곡을 향한다.



이날 회향까지 비가 쉬지 않고 내렸다. 회향식을 위해 숙소로 들어서는 순례단.



순례단을 위해 아름다운동행과 안성 석남사가 점심 공양을 준비했다. 순례단을 반갑게 맞는 아름다운동행 상임 이사 일화스님.



천리순례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마을회관에 와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는 김선진 이방면사무소 주무관와 노태우 동산마을이장.



순례단의 안전을 위해 지역 경찰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새벽 내린 비로 순례단은 우비를 입었다. 우비 안에 스님들이 착용한 가사가 보인다.



이날 코스는 국도가 많았다. 안전요원들이 순례단 중간 중간에서 차량 접근을 알려준다.



이날 새벽부터 숙영지 도착까지 끊이지 않고 비가 내렸다.



모녀로 참가한 순례단원의 모자에 모녀애를 느낄수 있는 상징이 붙어 있다.



순례단이 낙동강을 가로 지나는 우곡교를 건너가고 있다.



순례단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우스님이 자전거를 끌고 순례단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발목에 부상을 입은 회주스님이 이방면 휴식공간에서 의료조치를 받고 있다.



우비를 입은 순례단원들의 익살스러운 동작들.



신발에 물은 스며드는 것을 막기위한 여러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양말이 뽕송뽕송하더"고 자랑한 한 안전요원.



경로당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순례단원들.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힘찬 발걸음.



고령을 지나 창녕으로 향해가는 순례단의 긴 행렬.



멈춘듯 했던 빗줄기가 숙영지에 다와서 다시 강해졌다.



이날 축원을 맡은 5조 정혜스님의 신발.



지객 원명스님이 12일차 순례의 마침을 알리는 축비를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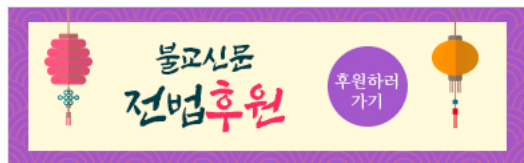
고창 마하사 주지 정혜스님이 12일차 순례 회향자리에서 축원기도를 올렸다.

창녕=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
- ↳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① 한국불교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감 하나로 밤낮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 긴장 속 호국...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② "우리 모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 대장정 회향...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딸과 평생...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찾...
- ↳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매선사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② 사찰 참배...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② 삼보의 의...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발톱이 들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② '적극적 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 길 위 수장의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① 마지막 고...
- ↳ 423km 대장정 회향...순례길 여는 출발점 ...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